

광주기업 셀런, 한컴 인수

하드·소프트웨어 통합... '한국판 애플 신화' 예고

광주에 본사를 둔 인터넷TV 셋톱박스 제조업체인 셀런이 한글과컴퓨터(이하 한컴)를 인수한다.

셀런은 계열사인 삼보컴퓨터, 셀런에스엔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프라이그룹이 보유한 한컴의 지분을 공동 출자 방식으로 인수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셀런 컨소시엄과 프라이그룹측은 1주일내에 본계약을 체결하고 조만간 정밀실사 등 본격적인 인수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인수하는 지분은 프라이그룹측이 보유한 한컴 지분 29.34% 가운데 28%로, 업계에선 매각대금을 500억원 안팎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컴은 올해 IT업계의 최대 M&A 매물로, 셀런 계열사인 삼보컴퓨터를 비롯해 NHN과 누리텔레콤 등이 처

열한 인수전을 벌여왔다. 하지만 프라이그룹이 셀런을 한컴의 새로운 주인으로 선택하면서 인수전은 결국 셀런의 승리로 막을 내리게 됐다.

특히 이번 인수는 광주지역 기업간의 거래라는 점에서 지역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셀런의 김영민(42) 대표와 프라이그룹의 백종현(57) 회장은 모두 전남대 출신으로 지역을 모태로 기업을 일으켜 전국적인 규모의 그룹으로 키웠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백회장은 서울 테크노마트 등 부동산 개발회사인 프라이개발과 동아건설을 소유하고 있으며, 김대표는 삼보컴퓨터에도 셀런·프리스·한틀시스템 등 상장사만 3곳을 거느린 IT업계의 총아로 급부상했다.

이번 한컴 인수과정에서도 백회장

과 김대표의 의지가 크게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셀런이 삼보컴퓨터를 통해 한컴을 인수한 것을 두고 IT업계 최고의 조합이라며 시너지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삼보컴퓨터가 생산하는 PC 신제품에 한글 워드프로세서와 오피스 등 한컴 SW를 기본 패키지로 엮힐 경우 삼보는 적당한 가격 경쟁력을, 한컴에게는 매출 확대 효과가 기대된다.

셀런 김영민 대표는 "삼보와 한글과컴퓨터의 만남은 대한민국 IT를 대표하는 두 기업의 결합"이라며 "양사가 갖고 있는 브랜드 가치를 합쳐 대내외적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정통성을 갖춘 IT기업으로 뭉클 이어갈 것"이라고 자신했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Digital & IT

넷북·오픈메일 인기



또 하나의 사무실 '모바일 e 내세상'

출장이 많은 회사원, 이동하면서 공부해야 하는 대학생 등에게 넷북과 오픈메일이 인기다. 무게는 노트북을 들고다니지 않아도 되고 담배연기에 찌든 PC방에 안가도 회사 업무처리나 자료 전송이 가능해서다.

IT기기의 유비쿼터스(Ubiquitous) 환경이 급속도로 좋아지면서 값싼 가격으로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과 오피스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특히 바쁜 생활 속에서도 소지가 간편하고 가격이 저렴한 넷북이나 휴대전화로 다양한 이메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오픈메일' 등이 대학생이나 회사원의 필수 아이템이 되고 있다.

넷북의 경우 대용량 게임 등 엔터

사무실 밖에서도 회사 업무·리포트 전송 가능

값 싸고 휴대 간편... 회사원·대학생 사용 붐물

테이먼트 기능보다 업무처리에 꼭 필요한 사무처리를 편하게 구성돼 있다. 오픈메일도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을 때 급하게 이메일을 써야 하는 소비자들에게 서비스 초점을 맞췄다.

〈넷북 사용자 '붐물'〉= 미니노트북이라고 불리는 넷북의 가장 큰 장점은 일반 노트북에 비해 30~50%가량 저렴한 가격과 1kg 이상 가벼운 중량이다. 1분기에 전 분기보다 32% 급증한 대가 팔렸을 정도다. 소비자들이 주로 찾는 품목은 LG 엑스노트 미니 'X120'와 삼성

의 'NC10', 삼보 '에버라텍 버디 HS-101', MSI의 '윈드 넷북 U100', 델의 '인스피론 미니 100' 등이다. 일반 노트북에 비해 성능이 크게 떨어지지 않으면서도 60~80만원으로 부담이 적다.

이달 말 출시될 한국HP의 '미니 110'은 국내 최저가인 37만4천원 수준으로 예정돼 있어 가격인하를 부추길 전망이다.

〈오픈메일도 인기〉= 노트북이나 넷북이 부담스러운 대학생들은 KT가 최근 내놓은 휴대전화 '오픈메일'을 이용하면 저렴한 가격으로

다양한 이메일 서비스를 즐길 수 있다.

지금까지 휴대전화에서 지원했던 메일 서비스가 단순히 '읽는 수준'이었다면, 오픈메일은 메일 수신뿐만 아니라 메일 작성, 첨부파일 확인(워드, 파워포인트, 엑셀 파일 등), 메일 도착 서비스 등 PC와 유사한 서비스를 받게 한다. 월정액 3천500원으로 정보이용료 + 통화료 무료로 이메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삼성컴퓨터 금호월드점 관계자는 "보편화한 넷북의 경우 가격차이가 크게 나질 않는 대신 부가기능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기능을 많이 쓰는지에 따라 선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강필수기자 kps@kwangju.co.kr

보해 가시오가피주 출시

보해양조는 가시오가피로 빚은 과실주 '보해 가시오가피주 <사진>'을 출시한다고 10일 밝혔다.



11일부터 시판되는 이 제품은 가시오가피를 주원료로 오미자 등 11가지 한약재와 지하 253m의 천연암반수로 빚어 맛과 향이 깊고 진하다 회사 측은 설명했다.

가시오가피는 면역력을 높이고 간 기능 보호, 혈당 조절, 항암작용을 하는 여러 가지 성분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알코올 도수는 13도이다.

/정필수기자 bungy@

'몬스터체이스' 이통3사 서비스 시작

광주의 대표적인 모바일게임 개발사인 인터세이브가 10일 전략&육성시물레이션게임인 '몬스터체이스'<사진>를 SKT를 통해 서비스하기 시작했다. 인터세이브는 이로써 이동통신 3사에 모두 서비스를 하게 됐다.



다운로드 17종류의 몬스터, 7가지 속성부여, 20가지의 체육용품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총 136종류의 몬스터를 사용할 수 있다.

/강필수기자 kps@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국제보청기

www.kjtu.com

본점 (062) 227-9940

충청점 (062) 227-9970

순천점 (061) 752-9940

목포점 (061) 262-9200

익산점 (063) 851-2422

산행안내

KT 무휴상용

KT에서 수입판매하는 아이더통신이 구입시 2~3만원 현금 보상

시행 6월 21일까지

산행안내

산행의 즐거움과 건강을 위한 다양한 산행 프로그램 안내